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5.(목) 06:00	배포일	2022. 12. 14.(수)
담당 부서	피해구제국 1372운영팀	담당자	이종원 팀 장 (043-880-5801) 한동원 대 리 (043-880-5805)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 거짓 결제 내역 및 연락처를 발송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유도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소비자상담이 최근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년간(2020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수신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급증**하여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11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16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발신자 부담)

** 2020년(9~12월) 2,516건, 2021년 11,080건 접수

□ 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22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올해도 9월 말까지 유사한 내용의 상담이 4,0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문자메시지 발송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수신한 문자메시지에는 '국제(해외)발신' 문구와 허위 해외 결제 내역 등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라는 거짓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소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사칭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사례]

 [국제발신] [가짜]님 해외인증 6177* USD 620\$ 결제완료 본인 아닐시 한국소비자원 문의:031-924-4152 오후 12:22	2021년 3월 2일 화요일  [Web 국제 발신] 해외인증 [USD] \$559 결제완료 본인 아닐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 031-945-2713 오전 9시 20분
(2020년)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시,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안내한 후 경찰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옴.	(2021년 이후) 문자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 시,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함.

□ 스미싱 문자메시지 수신 시 즉시 삭제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야

소비자원은 기관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개인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수신할 경우, 통화를 하지 말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스미싱 문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번)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

1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가. 접수 건수

- 2020년(9~12월) 2,516건, 2021년 11,080건, 2022년(9월 기준) 3,793건 등 최근 3년간 17,399건의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관련 소비자상담이 접수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관련 상담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0.09.~12.	2021	~2022.09.	합계
상담 건수	2,516	11,080	3,793	17,389

* '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소비자원 사칭 피해', '소비자원 사칭 피상', '소비자원 사칭 파밍'으로 조회한 건수

나. 상담 유형

- (2020년) '해외발신' 문구와 함께 허위 카드 결제 내역을 기재하고, 거짓 연락처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을 유도하는 문자를 수신하였다는 사례가 주로 발생
- (주요 사례) 연락 유도 후 타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

A씨가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를 수신하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해 주겠다고 함. 이후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음.

* [국외발신] 아마존 USD450 결제 본인 아닐 시 소비자원 상담전화 031-919-1262로 연락

- ☐ (2021년 이후) 문자의 형태는 2020년 사례와 유사하나 소비자가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할 시, 개인·금융정보 제공 또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로 변화

○ (주요 사례 1) 개인·금융정보 요구

B씨가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를 수신하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거래은행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함.

* 국제발신 카카오페이 해외인증 895,000원 결제 완료 본인 아닐 시 한국소비자원 050-6191-8216으로 신고바람

○ (주요 사례 2)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C씨가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를 수신하고 문자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자,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발견되었다며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함.

* 해외발신 LG페이 270,000원 결제 본인 아닐 시 소비자원 02-742-0298로 연락

2 소비자 주의 사항

가. 문자메시지 수신 시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열어보지 말고 즉시 삭제한다.

* 한국소비자원은 상담, 피해구제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로 주민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한 경우

- ☐ 경제적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한다.

* cyberbureau.police.go.kr

- ☐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한다.

다. 일상생활 중 예방법

- ☐ 휴대폰에 보안 및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강화 서비스*에 가입한다.

* 인증서 PC 지정, SMS 사전 인증 등

- ☐ 휴대폰 내 개인정보 보관을 자제하고 각종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 ☐ 불필요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차단한다.